

## 7월 구역모임

### 말씀 생활

#### ☞ 1. 환영 Welcome

- ◎ 인사와 교제
- ◎ 감사와 나눔

#### ☞ 2. 찬양 Worship

- ◎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200장)
- ◎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찬546장)
- ◎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찬285장)

#### ☞ 3. 말씀 Word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1:1~3)

##### (1) 1단계 - 말씀을 들어라

말씀 생활의 첫 단계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전제, 내 판단,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 ■ 보는 신앙과 듣는 신앙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10:17)

‘들음’은 신구약을 통틀어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장 엄하게 꾸짖으시고, 질투하신 원인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의 비와 구름과 풍성한 오곡백과를 약속하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앙의 특징은 ‘보여 주는 신앙’입니다. 오곡백과와 풍년을 보여 주고 만질 수 있게 해 주면 믿겠다는 신앙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보거나 만질 수 없으면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초신자들에게는 당신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주님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멍 난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 주시고 만지게 해 주신 예수님이 잠시 후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20:29)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이 “들음의 신앙”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와 금상이나 우상이나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것 속에 있지 않다. 너희들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도 나 여호와를 절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다만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들을 수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 ■ 영적 경청과 물리적 듣기

듣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영적 경청’(listening)과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물리적 듣기’(hearing)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듣기는 영적 경청입니다. 영이 영의 일을 알듯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영적 민감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내 영의 주파수를 맞추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으로는 영의 교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뿐 아니라 대화에 담긴 호흡, 톤, 색깔, 정서, 영적 뉘앙스까지 충실히 들어줄 때 이 대화는 인격적 만남이 주는 만족감을 서로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경청입니다. 반면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기는 하지만 서로의 대화를 머리로만 이해하려 든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인격적 만남의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들었지만(hearing) 듣지(listening)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영적 경청’ 가운데 위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삼상3:10)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6:8)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변화되고자 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으려 하지만 좀처럼 잘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세상이 내게 들려준 소리가 영혼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들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5분 혹은 10분 정도 조용히 눈을 감고 부유해 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들음의 자세입니다. 이 들음의 자세는 이후 모든 단계에 반복됩니다.

## (2) 2단계 -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는 마음이 선 후에는 이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1:3)

## ■ 성경 전체를 죽죽 읽어 내려가라

성경을 죽죽 읽어 나가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의 전체 주제와 흐름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의 큰 흐름이 내게 가르쳐 주는 방향과 물길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죽죽 읽어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마치 소설 읽듯이 읽어 나가야 합니다.

신약은 구약의 토대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와 성도 개인의 인격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신약에서 구속 신앙과 부활 신앙을 먼저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성경의 순서요 역사의 순서는 창조 뒤에 구속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구속 신앙을 경험하고 난 뒤에 창조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정 자신들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 뒤에 광야, 즉 생명의 불모지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이끄신 하나님이 구속자일 뿐 아니라, 천하 만물을 친히 만드신 창조자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도인 나를 통해 어떻게 펼쳐져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와 만물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깊숙한 부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구약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예언자들의 삶, 왕들의 일대기, 다윗의 인생, 시편과 잠언, 전도서 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 살펴보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쪽을 강조해서 읽다 보면 어느덧 신앙의 균형이 맞추어집니다.

### (3) 3단계 - 말씀을 연구하라

“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려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행17:11~12)

바울이 보기에 베뢰아 교인이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너그려워서’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oble character’로 번역되어 있으며, ‘고상한, 숭고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시장 바닥에서 몸 붙이며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지만, 그 영혼의 지향성은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스펀지가 물기를 빨아들이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꼼꼼히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태도가 대단히 귀한 자세로 보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베뢰아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다’(open minded)라고 해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편안하게 읽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단어, 구절, 개념, 이미지가 내 마음을 끄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을 끈 부분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적어보는 것이 연구입니다. 개신교 신앙의 장점 중 하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입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신비 혹은 주술의 세계에 내어 맡기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 ■ 말씀 해석의 세 가지 방법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는 독법입니다.

둘째,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읽고, 그것을 오늘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신학 수련을 받은 목회자들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 (4) 4단계 - 말씀을 묵상하라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1:1~2)

시편 1편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자식이 잘되는 사람, 장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묵상은 말씀을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곹씹어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날 특별히 마음이 끌리거나 울려오는 한두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의 객관적인 의미를 연구하여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석된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듣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중에 내 삶에 있었던 사건, 장면, 마음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장면들에 깨달은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깨달은 말씀이 어제 아내와 다툰 나를 떠올리며 화해를 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게을러진 요즘의 나를 떠올리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 (5) 5단계 - 말씀을 실천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7:24)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를 들었으면 한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편지도 쓰고,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7:17)

예수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네 임의로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때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네가 말씀에 자신을 걸고 살아 보면 그 말씀이 참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싶다면 그 말씀에 존재를 걸어야 합니다. 그로써 영적 능력과 확신을 갖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실천의 종교임을 말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6) 말씀 생활 5단계로 보게 되는 변화

말씀 생활의 5단계를 죽 따라가면 성도는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듣기도 많이 듣고, 읽기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변화하고 있나?’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제일 먼저 자신이 말씀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십시오. 만약 말씀 생활의 신실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면 내가 변화되었는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믿으십시오.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묵상해 하나씩 실천해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 삶의 적용을 위한 나눔 ✦

- (1) 오늘의 공과에서 내게 주신 도전, 은혜, 감사가 있다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2) 건강한 말씀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 (개인내면, 삶의 환경 등)이 있다면 솔직하게 나눠보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 🌸 4. 중보기도 Work

- ◎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 ◎ 교회와 나라와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 합심기도 후 ‘주기도’로 구역모임을 마칩니다.